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대로 된다.
2. 〈생각〉을 했으면, ‘생각’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생각 실상 세계〉다. 고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된다.
다만 〈땅〉은 늦게 알 뿐이다.
4. 〈생각〉은 ‘손’과 같아서 생각을 안 하면, 가만히 있다.
5. 〈생각〉은 생각을 해야 시동이 걸린다. 〈생각〉을 안 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고로 〈생각의 주인〉이 명령을 해야 된다. 〈명령〉은 ‘뇌’에서 한다.
6. 자기 생각을 두고, “생각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빨리 생각하자.” 하고서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 〈과거의 것〉은 그냥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은 명령하고 지시해서 생각하게 해야 된다.
7. ‘보여 줘야’ 생각나고, ‘연구해야’ 생각난다.
8. 하나님이 〈뇌, 생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고 다뤄야 된다. 써먹을 줄 모르면 안 된다. 〈뇌〉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9. <생각>은 자꾸 써야 빛이 난다.

10. <외울 때>도 자꾸 글로 써 보고 생각해야 외워진다.

11. <컴퓨터>나 <핸드폰>이 많은 것을 저장한다고 해도, ‘인간의 뇌’ 만큼) 저장을 못 한다. <뇌>를 써 보아라. <뇌>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고, <컴퓨터나 핸드폰>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12. <뇌>에 대해 연구하고, 알고, 써먹어야 된다.

13. <손>이 ‘보이는 뇌’다. <손>이나 <발>에 ‘신경’을 다 깔아 뉘기 때문에 뇌를 보지 않아도 ‘손’이나 ‘발’을 보면 안다. <뇌>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4. <뇌>는 ‘신경 덩어리’다.

15. <생각 실상 세계>다. 고로 직접 보지 않아도 <기쁜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신경 쓰이는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16. 손이나 발에 신경이 깔려 있어도 <손>이나 <발>로는 ‘기쁨’을 느낄 수도 없고, 명령도 못 하고, 판단도 못 한다. <느끼는 것>도, <명령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모두 ‘뇌’에서 한다.

17.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자꾸 연구하고, 계산

해 보고 따져야 생각이 발달된다.

18. <몸 발달>보다 ‘생각 발달’이 더 힘들다. 그러나 <육신이 못하는 것>은 ‘영’으로 해 버리면 된다. <혼>과 <영>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육신이 안 했어도 얻을 수 있다.

19. <뇌를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함으로 <영적>으로도 씹먹고, <육적>으로도 씹먹어야 된다.

20.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뇌를 놀리지 말아라.” 하셨다. <뇌>를 가만히 두면, 무의식중에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똑같다. <뇌>에 명령하고, 지시하고, 계속 구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21. <생각>을 가만히 두면, ‘무의식’에 처해 있다.

22. <손>을 쓰듯, ‘생각’을 써야 된다.

23. <생각 발달, 뇌 발달>을 시키면 무한히 행하여 얻을 수 있다.

24.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잘 조종하면서 생각을 놀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25. <생각>을 놀리면, 빈 방아만 돌아가는 것과 같다. 방아에 쌀도 넣고 보리도 넣고 쪼아야 되는데 빈 방아만 돌아가는 것이다.

26. <생각 발달, 뇌 발달>을 무한히 시키면서 <뇌>를 주관하고 다

스러야 된다. 그리고 정신일도 하고 해야 된다.

27. 생각하기에 달렸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위 절벽을 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두려움을 없애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를 끊어 버리기도 한다.

28. <생각>을 하나님과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생각을 직접 쥐고 하신다.

29. <생각>에 따라 그림도 그리고, 건물을 만들기도 한다.

30. <생각>을 잘못했으면, 성전도 못 샀다. 교회를 살 때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사라고 하셨다. 그런데 한 교회의 여건으로는 살 수 없으니, 벌이 뭉치듯 뭉쳐서 하라고 하셨다. 고로 5~8개 교회가 서로 뭉쳐서 교회를 샀다.이같이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서 교회를 산 것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못 샀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이다.

31. <생각>을 잘해야 된다.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때부터 밀어붙이며 행해야 된다. <영적으로 할 것>은 기도하며 영으로 행하고, <육적으로 할 것>은 육이 실제 뛰고 달리며 행해야 된다.

32. <생각>을 넓게, 높게 해야 그만큼 크게 얻는다.

33. <영력 있는 생각>이 되게 기도하여라.

34. <생각>을 모아야 한다. <잡생각>은 다 없애고 ‘생각’을 모아
서 절대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
35. <생각>을 요리하여라.
36. <생각의 칼질>을 하고, <생각의 무기>를 써라.
37. <생각>을 강하게 집중해서 써야 된다.
38. 성경의 역사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심
판을 받게 됐다.” 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
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39. <인간의 생각>은 항상 짧고, 부족하다. 혹은 완전해도 그 생각
이 작으니 효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사과>가 완전
해도 작으면 사과로서 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같이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머리’에서 완전한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면 완전하지 못하다. 고
로 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물어라. 왜 묻지 않고 행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물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니
아신다.” 했다.
40. <생각>으로 ‘초인’ 되고, <생각>으로 ‘의인’ 된다.
41. <생각>을 잘못하면, ‘생각의 죄’가 된다. 고로 <생각>을 잘

해야 된다.

42. <생각>을 ‘사람’으로 보아라. 그리함으로 늘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관리해야 된다.

43. <생각>을 짧게 하여라.

44. <생각의 잠>을 깨워서 부활시킴으로 ‘유능한 생각, 유능한 머리’가 돼야 한다. <신앙의 머리>를 갖춰야 된다.

45. <생각>도 규모 있게 확실히 해야 된다. <규>와 <모>를 갖추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

46. <자기 생각, 정신, 마음>을 다스려라.

47. <자기 생각, 정신, 마음>을 더 좋게, 이상적으로 만들어라.

◎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